

# 지우기를 통해 일구는 삶

— 정문경의 길展에 부쳐 —

김 영 호

미술평론가/중앙대학교수

정문경의 작업은 덧칠된 화면을 지워내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있다. 표면에 가득 채워진 채목이 건조되기를 기다려 작가는 그 위에 행위를 가한다. 때로는 몇 줄기의 선묘를 실행하거나 물감을 반복해 흘리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바탕의 비워진 공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다. 은밀하게 자리잡은 형상은 대부분의 경우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없고 붓의 반복적 터치로 얼룩진 빛깔을 품고 있다. 또한 붓자국이 건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발묵 효과는 화면에 어떤 시간의 흔적을 암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문경의 지워내기 작업은 생산된 작품 자체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제작 과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워내는 행위의 프로세스는 절제된 드로잉의 그것과 함께 작가에게 특별한 상징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화면을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정신의 텅밭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일구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우기 작업은 현실을 사는 작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식이면서 생성과 소멸사이에 운행되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화면에 그리다 만것같은 설익음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거기에는 명상의 발자욱과 목시적인 시정이 담겨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가는 한 점의 그림을 마무리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힘겨워한다. 이는 완성된 작품 못지 않게 작품 제작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로서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인다.

결국 정문경은 자신이 내세우는 프로세스의 개념을 길이라는 대상을 통해 화면에 가시화시키고 있다. 길은 목적된 장소가 아니라 어디론가 이끄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은 인생 행로를 상징하기도 하고 절대 가치를 위한 수도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정문경의 작업은 지식과 욕망을 떠난 무목적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에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역할은 종교적 실천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에 의해 본질을 구하는 것이다. 정문경의 경우 지워내기의 과정과 길의 표상은 결국 화면을 둘러싼 형식의 테두리 안에서 창작 행위의 당위성이 주어지고 있다.

정문경의 화면에는 대상으로서 길의 형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암시적인 몇 개의 선이나 색면으로 표상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현실적인 길의 형태를 찾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중첩된 붓자국에 의해 화면 위에 새겨진 선묘와 절약된 색의 양괴는 때로 자연 풍경의 부분들로 보이기도 한다. 그의 그림은 복합적인 인식의 세계이며

개체적 형상을 떠나 인생의 노정에서 마주치는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대상의 외형적 묘사나 문학적 서술이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추상적 이미지는 직관에 의해 독특한 울림과 함께 자연의 리얼리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문경의 작품에서는 지워내기를 거쳐 형성된 바탕의 기운보다 그 위에 가해진 드로잉 행위의 결과가 더 강조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남긴 자국과 연꽃이나 나무 뿌리 그리고 열매를 연상케 하는 절약된 형태들이 자신의 표현성을 주장하며 화면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은 화면 위에서 작가가 시도하는 적극적인 지우기 행위와 상충되는 요인들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에서 비워낸다는 것은 적절한 것을 찾아 채운다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정문경의 지워내기는 채우기를 위한 변주곡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수 없을 것이다.

속도와 소음 그리고 정보와 폭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넘치는 이 시대에서 정문경의 지우기 작업은 도시 전체에 덮인 스모그를 씻어내는 빗줄기들처럼 정겹다. 그러나 작가의 화면은 자연의 질서를 나타내는 서사시가 아니라 자연을 지향하는 일련의 서정시처럼 보인다. 거기에는 도심에 뿌리내린 자신의 삶으로부터 형성된 사색과 소박한 시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자신이 내면에서 상반된 두 문화의 상념들을 조화시키려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작가는 이제 자연에서 찾은 심연의 오솔길을 품고 있다.